

UNPD 인구동태통계 완전성 평가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

(2016.11.09.)

<회의 개최 배경>

- UN은 지속가능발전 전략목표로 등록자료에 의한 인구동태통계 작성 및 **2030년까지 출생 등록율 100%, 사망등록율 80% 달성**을 제시
 - * 2015년 현재 회원국 출생등록률 72%, 사망등록율 33% (WHO 추정)
- UNPD는 한국통계청과 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등록자료에 의한 인구동태 작성 실태 및 완전성 평가 방법론 전문가 회의를 개최

1 회의 개요

- 회의기간: 2016. 11.3.~4.(출장기간: 11-2~11.7)
- 회의장소: 미국 뉴욕, 유엔 본부
- 참가인원: 51명
 - 국제기구: UNPD, WHO, UNSD, UNICEF, WHO 등
 - 학계: 미국 하버드대, 호주 국립대, 남아공 케이프타운대 등
 - 연구소: 독일 막스 플랑크 등
 - 국가기관: 오만(Oman) 복지부, 인도 내무부, 브라질 복지부 등
 - 한국 대표단: 인구동향과 이지연 과장, 아태연구소 황선재박사

2 한국 대표단 수행사항

- 등록조사자료 연계를 통한 영아사망통계 완전성 향상 사례 발표
- 인구동태통계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 인구 통계 질의 응답
- 한국 통계청 과건관 면담 및 통계청과 UNFPA 공동사업 현황 파악

3 우리청 관련 사항

□ 사망통계 관련

- 하버드대 (Hill 교수): 한국은 영아사망통계를 가장 혁신적으로 개선한 사례이며, 성공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전파가 필요
- 막스 플랑크 연구소 (Shkolnikov HMD 과장): 한국 사망통계의 품질 향상은 놀라운 수준, HMD에 한국 자료 수록을 공식 요청하겠음

< Human Mortality Database >

- 2000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미국 UC 버클리대가 공동으로 만든 데이터 포털 사이트
- 현재 38개국의 사망통계 및 인구추정치 제공중, 연간 이용자수 3만명 이상

□ 인구통계 관련

-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“인구동태통계체계가 작동하는 국가들의 데이터 품질문제”라는 발표에서 한국의 소급추계인구와 총조사간에 연령별 인구가 차이가 있어 한국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

* 미국은 사후조사에 의해 순누락을 사전에 보정해서 총조사 인구를 발표하므로, 총조사 인구와 소급추계 인구 수치가 동일

- ⇐ 한국의 소급추계인구는 사후조사를 통해 총조사의 순누락을 및 연령별 응답 오차율을 보정한 자료이며, 2015년 등록센서스 전환에 따라 2000년까지 새로 소급한 인구를 발표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설명

□ 국제 ODA 사업 관련

- 호주국립대(Rao 교수):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 통계청과 월드뱅크가 추진중인 개도국 인구동태작성 체계 지원에 참여를 희망

* 모든 발표자료는 <http://www.un.org/en/development/desa/population/events/expert-group/26/index.shtml>에 수록

4 시사점

- 국제기구들이 지속가능발전전략목표에 따라 개도국의 인구동태 작성 체계 지원을 1순위 사업목표로 설정, 조직을 재정비 중
 - UN산하 및 WHO, World Bank 등은 회원국 제출 통계에서 신분등록자료에 의한 인구통계 제출 여부를 평가지표로 활용 중
- 향후 한국의 인구동태와 관련된 국제 ODA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, 우리청 ODA 사업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
- 우리청과 국제기구 공동 개최 회의는 담당과에서 참석, 환영사 등 행정사항에 대한 현장 지원을 통해 홍보 효과 제고가 바람직